

# 콜레쥬드 프랑스 한국 고문헌 연구

## Korean Rare Books in Collège de France

이혜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helee@mail.nl.go.kr

Hyeeun, Le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희재,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hee0612@sookmyung.ac.kr

Heejae,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이 연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콜레쥬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실사(實事)하여 소장본의 규모와 전래경위, 자료적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구한말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프랑스 내 한국 고문헌 소재과약의 중요한 참고문헌인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저술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 개인 소장본과 콜레쥬드 프랑스 소장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외 한국 문화재의 기초조사에 일조를 하고자 하며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서론

유럽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문헌은 우리나라와 문화교류의 역사가 깊은 중국, 일본등에 비해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나 Ceadel이 1953년에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sup>1)</sup> 당시 극동 컬렉션을 소장한 기관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4개국에만 30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소재 한국 고문헌의 분포도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유럽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자료 연구는 가장 많은 한국 고문헌이 소장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자료적 특징에 대하여서도 매우 포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여러 한국 고문헌 소장 기관

중 콜레쥬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한국 고문헌은 25종이 중국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것<sup>3)</sup>을 제외하고는 자료에 대한 상세

1) Ceadel, E.B. 1953. "Far Eastern Collections in Libraries in Great Britain, France, Holland and Germany, *Miscellaneous Communications*, pp.213-222  
<http://www.ihp.sinica.edu.tw/~asiamajor/pdf/1953/1953-213.pdf> [cited.2010.7.23]

2) 박병선. 1985. 『朝鮮朝의 儀軌 : 과리소장본과 국내 소장본의 서지학적 비교 검토』,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희재. 1988. "모리스 꾸랑과 韓國書誌에 관한 考察", 『淑明女大 論文集』 28,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pp.325-364

李姬載. 1994. "프랑스 빠리東洋語學校 圖書館 所藏本의 主題別 特性과 意義", 『書誌學研究』 10, 서울 : 서지학회, pp.237-274

李姬載. 1994. 『韓國書誌』, 修正翻譯版, 모리스 꾸랑 原著, 서울: 一潮閣

박상국. 2003.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 『문화재』 36, 서울 : 국립문화재연구소, pp.379-386

박상국. 2003. "유럽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18, 서울 : 대동한문학회, pp.91-123

이진명. 2003.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pp.183-221

이희재. 2009. "재발 한국 고서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pp.25-46

3) 李姬載. 1994. 프랑스 빠리東洋語學校 圖書館 所藏本

한 내용이 밝혀지지 못했다.

최근 문화재 반환등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문화재가 어느 기관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가 전래된 경위와 상세한 서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문화재를 공개하지 않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자료의 접근성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플레주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실사(實事)하여 소장본의 규모와 전래경위, 자료적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외 한국 문화재의 기초조사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 2. 한국 고문헌의 유입과정과 보존현황

플레주드 프랑스는 1530년 설립된 고등교육연구기관이다. 프랑스 왕 프랑소와 1세(François I)는 당시 인문주의자였던 기욤 뷔데(Guillaume Budé)의 권유에 의해 당시 소르본느에서 가르치지 않던 히브리어, 고대 그리스어, 수학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Collège Royal', 'Collège Impérial'로 불리워졌고 1870년부터 현재의 명칭인 'Collège de France'로 부르게 되었다<sup>4)</sup>. 플레주드 프랑스는 학위수여나 등록의 절차등이 없이 자유롭게 강의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나 당대 최고의 석학을 교수로 임명하여 강의를 개설하고 있

어 강의의 수준은 상당하다. 또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도 전통적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장서를 수집하여 운영하였고 플레주드 프랑스 교수들의 기증도 상당하여 도서관 장서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플레주드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된 희귀본 고서들은 대부분 플레주드 프랑스 소속 교수들과 프랑스 및 외국기관의 기증, 그리고 1972년에 소르본느 대학의 동양연구소와 1950년 이후 북경의 동양학연구소(Ancien Centre d'Études Chinoises)에서 이관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sup>5)</sup>.

특히, 구한말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프랑스 내 한국 고문헌 소재과약의 중요한 참고문헌인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sup>6)</sup>』를 저술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1934년과 1936년 두 번에 걸쳐 플레주드 프랑스의 중국연구소(漢學研究所, IHEC : Institut des Hautes Études Chinoises)에 희귀본 고서들을 기증하였다<sup>7)</sup>.

이렇게 기증된 자료들은 그동안 모두 중국 컬렉션으로 소장되어 왔고 자료명과 저자명이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발음으로 기록되어 자료의 확인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플레주드 프랑스 도서관 자체적으로 한국자료와 일본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5년 6월, 이들 선별된 자료들은 각각 한국 컬렉션과 일본 컬렉션으로 이관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 고문헌은 모두

의 主題別 特性과 意義, 『書誌學研究』 10, p.238

4) [http://www.college-de-france.fr/default/EN/all/college\\_english/index.htm](http://www.college-de-france.fr/default/EN/all/college_english/index.htm) [cited 2010.8.3]

5) [http://www.college-de-france.fr/default/EN/all/ins\\_bib\\_en/far\\_east.htm](http://www.college-de-france.fr/default/EN/all/ins_bib_en/far_east.htm) [cited.2010.8.3]

6)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 Ernest Leroux, 1894-1896, 3 vol. Supplément. 1 vol. 1901

7) 플레주드 프랑스 담당직원은 이를 기증한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Daniel Bouchez 교수가 '한국서지' 권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모리스 꾸랑이 구입한 자료를 플레주드 프랑스 중국연구소에서 재구입하였다고 한다.

52종 418책으로 나타났다. 모리스 꾸랑은 『한국서지』에서 수록자료의 당시 소장처를 조사하여 명기하였고 특히 모리스 꾸랑 개인의 소장본은 ‘M.C’라는 약어로 표기하였다.

현존하는 플레주드 프랑스 한국 고문헌과 모리스 꾸랑 개인 장서와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조사 자료와 『한국서지』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플레주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52종 418책중 27종 177책이 모리스 꾸랑 소장본임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는 <표 1>과 같다.

### 3. 플레주드 프랑스 소장본 분석

#### 3.1 주제별 분석

플레주드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의 주제별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우선 동양의 전통분류법인 사부분류법으로 구분하여 보면 경부(經部)가 7종 19책, 사부(史部)가 39종 363책, 자부(子部) 3종 22책, 집부(集部)는 3종14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1> 플레주드 프랑스 소장 모리스 꾸랑 장서

	CDF 등록번호	한국서지 수록 번호 및 분류	자료명	책수
1	n° 5228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525. 兩銓便攷	兩銓便考	2
2	n° 5230	補遺版 > 6部 史書部 > 3532. 陟州東海碑	陟州東海碑	1
3	n° 5258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723. 燕行事例	燕行事例	1
4	n° 5273	VI部 史書部 > 4章 地理類 > 2223. 宣和奉使高麗圖經	宣和奉使高麗圖經	1
5	n° 5319	I部 教誨部 > 2章 簡牘類 > 29. 簡禮彙纂	簡禮彙纂	1
6	n° 5330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744. 同文考略	同文考略	16
7	n° 5332	VI部 史書部 > 1章 東史類 > 1864. 紀年兒覽	紀年兒覽	6
8	n° 5333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461. 大典會通	大典會通	6
9	n° 5336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462. 六典條例	六典條例	10
10	n° 5340	VI部 史書部 > 2章 東雜蹟類 > 2112. 東國文獻備考	東國文獻備考	40
11	n° 5343	III部 儒教部 > 3章 儒家類 > 285bis. 退陶先生自省錄	退陶先生自省錄	1
12	n° 5344	VI部 史書部 > 4章 地理類 > 2292. 東京雜記	東京雜記	3
13	n° 5345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467. 百憲要覽	百憲要覽	4
14	n° 5346	VI部 史書部 > 2章 東雜蹟類 > 2108. 大東韻府群玉	大東韻府群玉	20
15	n° 5372	VI部 史書部 > 1章 東史類 > 1835. 三國史記	三國史記	10
16	n° 5380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 1517. 銀臺便攷	銀臺便考	10
17	n° 5405	VI部 史書部 > 4章 地理類 > 2187. 天下諸國圖	[天下諸國圖]	1
18	n° 5420	VI部 史書部 > 1章 東史類 > 2030. 赤鼠錄	赤鼠錄	1
19	n° 5424	II部 言語部 > 1章 漢語類 > 67. 御定奎章全韻	御定奎章全韻	1
20	n° 5428	VI部 史書部 > 4章 地理類 > 2279. 南漢伽藍誌	南漢伽藍志	1
21	n° 5429	I部 教誨部 > 1章 教育類 > 12. 童蒙先習	童蒙先習	1
22	n° 5433	V部 儀範部 > 1章 禮儀類 > 1053. 三班禮式	三班禮式	1
23	n° 5439	V部 儀範部 > 1章 禮儀類 > 1305. 進饌儀軌	進饌儀軌	4
24	n° 5440	VI部 史書部 > 1章 東史類 > 1857. 麗史提綱	麗史提綱	13
25	n° 10738	補遺版 > 6部 史書部 > 3516. 鮮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	神道碑銘 / 楊鎬去思碑銘	2
26	n° 10869		[날장 인쇄물]	12
27	-	VI部 史書部 > 1章 東史類 > 1910. 瑤源系譜紀略	瑤源系譜紀略	8

<표 2> 사부분류법에 따른 장서 분류

사부분류		종수	책수
經部	書類	2	13
	小學類	4	5
	禮類	1	1
史部	金石類	2	3
	譜系類	1	8
	史表類	1	6
	雜史類	2	2
	傳記類	1	1
	政法類	16	157
	正史類	2	81
	詔令·奏議類	2	2
	地理類	5	7
	職官類	3	13
	編年類	4	83
子部	類書類	2	21
	儒家類	1	1
集部	別集類	1	1
	雜著類	2	13
합 계		52	418

또한 장서 형성 당시의 한국 고문헌 주제분류 중 하나인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의 분류법에 의한 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모리스 꾸랑 분류에 따른 장서 분류

모리스 꾸랑 분류	종수	책수
I部 敎誨部 > 1章 敎育類	1	1
I部 敎誨部 > 2章 簡牘類	1	1
II部 言語部 > 1章 漢語類	3	4
III部 儒敎部 > 1章 經書類	2	13
III部 儒敎部 > 3章 儒家類	1	1
IV部 文墨部 > 2章 文集類	1	1
V部 儀範部 > 1章 禮儀類	5	9
V部 儀範部 > 2章 治理類	11	53
VI部 史書部 > 1章 東史類	11	186
VI部 史書部 > 2章 東雜蹟類	9	140
VI部 史書部 > 4章 地理類	7	9
합 계	52	418

플레주드 프랑스 도서관의 한국 고문헌의 장서 규모가 크지 않아 이것을 토대로 장서의 성격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부(史部)의 정법류, 정사류, 편년류의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리스 꾸랑의 분류에서도 역시 역사류인 사서부(史書部, Histoire et géographie)의

동사류(東史類, Histoire et la Corée)와 동잡적류(東雜蹟類, Documents relatifs à la Corée)의 자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구한말 당시 한국 고문헌을 수집하였던 수집가의 수집성향이나 당시 이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자료의 성격, 또한 한국 고문헌의 간행이나 필사에 있어 많은 양을 차지했던 자료의 파악과도 연관하여 추론할 수 있다.

### 3.2 판종별 분석

플레주드 프랑스 도서관의 한국 고문헌을 판종별로 분석하여 보면 목판본 22종 132책, 필사본은 16종 120책, 금속활자본 12종 115책, 신연활자본 1종 1책, 탁본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금속활자본의 경우 임진자(壬辰字)본은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 1종, 정유자(丁酉字)본은 『國朝寶鑑』,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등 2종,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본은 『三國史記』 1종, 윤각인서체자(後期芸閣印書體字)본은 『同文考略』, 『東國文獻備考』 등 2종, 정리자(整理字)본은 『進宴儀軌』, 『進饌儀軌』, 『地方制度』 등 3종, 전사자(全史字)본은 『兩銓便考』, 『三班禮式』, 『六典條例』 등 3종으로 조사되었다.

신연활자본은 1908(隆熙 2)년에 간행된 『增補文獻備考』 1종 50책이 소장되어 있고 탁본은 숙종 35년(1709) 이후로 추정되는 『陟州東海碑』 1첩(帖)이 소장되어 있다.

### 3.3 시기별 분석

플레주드 프랑스 소장본의 시기별 장서 분포를 보면 19세기에 발간된 자료가 37종 275책으로 가장 많고 20세기 발간 자료는 10종 90책이다. 18세기에 발간된 것은 3종 51책이며 선조(宣祖) 18년인 1585년 나주목(羅州牧)에서 간행된 『退陶先生自省錄』과 효종(孝宗)

3년인 1652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四溟堂大師集』이 가장 오래된 자료로 파악된다. 19세기와 20세기에 발간된 자료가 전체 장서중 87.3%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수집 당시에 간행된 자료들이 쉽게 수집되었고 플레쥬드 프랑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4. 향후 연구의 방향 및 결론

프랑스내의 한국 고문헌들은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동양어학교(국립동양언어와 문화학교, INALCO: Institut Nationale des Langues et Civilizations Orientales), 기메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에 소장된 자료들은 그 규모나 자료의 성격이 조사되어 왔으나<sup>8)</sup> 플레쥬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은 일부 모리스 꾸랑의 개인 소장본이 유입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플레쥬드 프랑스 한국 고문헌은 모두 52종 418책이며 이중 모리스 꾸랑의 소장본은 27종 177책임을 확인하였고 주제별로는 사부(史部)의 정법류, 정사류, 편년류의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판종별로는 금속활자본, 목판본, 필사본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자료의 발행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의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각 자료의 장서인(藏書印)을 분석하여 자료의 소장 과정을 보다 상세히 규명할 것이며 자료마다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다 완성된 서지를 작성할 것이다.

언급한 기관이외에도 현재 프랑스내에 한국 고문헌이 소장된 기관과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플레쥬드 프랑스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아시아 학회(Société Asiatique)에는 플레쥬드 프랑스

에 소장된 것과 동일한 신연활자본 『增補文獻備考』 50책이 소장되어 있다. 아시아학회는 1822년 당시 프랑스내의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중국, 일본등 아시아 각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또한 국립 예술사연구소(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에는 『삼강행실(三綱行實)』, 『전문천자(篆文千字)』 등 2종의 한국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데 모두 구한말 프랑스 전권공사였던 콜랭 드 뵈랑시(Collin de Plancy)의 장서이다. 그동안 콜랭 드 뵈랑시의 장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기메박물관등에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작은 수량이라도 프랑스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이다. 1653년 설립된 프랑스 선교사 중심의 카톨릭 전도단체인 파리의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에도 한국 고서 21종 87책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관련 고지도도 10여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고문헌들은 20세기 초 신연활자본으로 간행된 성경류가 대다수이나 이 가운데 플레쥬드 프랑스와 아시아학회에 소장된 것과 동일본 『增補文獻備考』가 소장되어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며 고지도는 당시 선교활동과 관련된 지도와 서양에서 제작한 한국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 내의 한국 고문헌의 특징은 기메박물관의 경우 현재에도 프랑스내 수집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국 고문헌을 구입하고 있으며<sup>9)</sup> 플레쥬드 프랑스측은 앞으로 한국학 연구소와 함께 도서관의 한국 컬렉션을 프랑스내 한국 고문헌 중심 도서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10)</sup>는 점이다. 이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기관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소장 목록은 국내 고문헌

8) 각주 2번 참조

9) 2010년 6월 2일 2시 F. Macoin 기메박물관 도서관장과의 인터뷰

10) 2010년 5월 31일 10시 Marie-Renée Cazabon 플레쥬드 프랑스 도서관장과의 인터뷰

종합목록과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희귀 고문헌의 경우 디지털화등을 통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박상국. 2003.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 『문화재』 36, 서울 : 국립문화재연구소, pp.379-386
- 박상국. 2003. “유럽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18, 서울 : 대동한문학회, pp.91-123
- 이진명. 2003.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 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pp.183-221
- 李姬載. 1994. “프랑스 빠리東洋語學校 圖書館 所藏本の 主題別 特性과 意義”, 『書誌學 研究』 10, 서울 : 서지학회, pp.237-274
- 李姬載. 1994. 『韓國書誌』, 修正翻譯版, 모리스 꾸랑 原著, 서울: 一潮閣
- 이희재. 2009. “재불 한국 고서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pp.25-46
- Ceadel, E.B. 1953. “Far Eastern Collections in Libraries in Great Britain, France, Holland and Germany, Miscellaneous Communications, pp.213-222
-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 Ernest Leroux, 1894-1896, 3 vol. Supplément. 1 vol. 1901